

‘극일’ 외치는 與... 대어 공세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도부 관광공사서 최고위...“국내 관광 전화위복 계기로” 한국당 “한·일 갈등·북한 미사일 도발 정부가 초래” 연일 맹공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외교·안보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일(克日) 기조 아래 전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주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외교·안보 상황과 경제 상황을 연결 지으며 대어공세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화두에 올리며 극일의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관광하고 외국인도 관광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SO·지소미아) 파기,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일 강경론’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집권여당의 정책 능력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대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다분하며 그 여파는 주식·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청와대는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동네북 신세’, ‘주먹밥 신세’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이들 새 시가총액 75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결계막(백드롭) 대결’을 펼쳤다.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은 한국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결계막을 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장에 ‘안보에는 너 나 없다! 문지자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의 결계막을 내걸었다. ‘안보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단합을 호소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어 공세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한일 무역 갈등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일, 반일, 반일 말고는 고민과 대안이 없다. 거대 야당도 시대착오적인 남북관을 보이면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고민과 해법이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나경원, 유승민 러브콜’ 후폭풍

유승민 “만난 적 없다” vs 손학규 “솔직해져라” 신경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러브콜’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7일 “나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당 행에 대한 강력한 부인은 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유승민 의원과 통화 안 하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유 의원이 서울에 (한국당으로)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발언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

됐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의원·유승민 계열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한국당 간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 의원이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한다”며 “(주대한 전 혁신위원장이 폭로한 것과 달리)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고 제대로 (입장 표명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또다시 스톱시켰다”며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톱키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도 “나 원내대표는 죄송한데 잠꼬대 같은 말을 더 이상하고 말고 한국당이나 제대로 추슬러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 이날 기

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은) 평소 생각이 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함께하는 게 맞다”고 우호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친박 진영의 김진태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우파 통합은 커녕 그나마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당이 또 쪼개져야 되겠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복당파’인 이재준 의원은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 ‘분당 초읽기’

당권과 “사퇴 불가” 고수...비당권파, 집단 탈당 예고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결국 분당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둘러싸고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일까지 양측 모두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분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당권파는 정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8일 곧바로 집단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후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다. 탈당에는 비당권파 모인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뿐 아니라 독자행동 중인 김경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견지하며 비당권파를 명분 없는 당권투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전남 중립파 의원들을 통해 당내 창당 준비기구 가동 시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사퇴의 ‘역제안’을 하며 명분살기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대안정치를 당내 공식 기구화하고, 이 기구의 위원장이 결정되면 정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 역제안의 골자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선(先)사퇴’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일축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정치 대변인이 (대안정치) 구성원 전부에게 전화한 결과 (모두) 먼저 정 대표가 사퇴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권파 측 핵심 인사는 “대안정치 측에서 사실상 정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없는 행태”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분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이날 밤이나 8일 아침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주홍 법률개정안 872건 대표발의 추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무려 87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황 의원은 실태조사 공표의무 법률 개정안 304건, 공무원의제 관련 법률개정안 185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145건 등 총 87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동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무리하게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신중치 않다. 공동발의를 하려면 법안 모두를 살펴봐야 하는데 무려 872건의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법안 발의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논조와 함께 법안 발의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만 무려 6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4년 임기 내에 150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하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靑 직원들에 책 선물

‘90년생이 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했다. 임흥택 작가가 펴낸 이 책은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기와 맞물려 이들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다. 이들이 어떤 새로운 사회현상을 불러오는지, 기성세대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며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다스코지주 **세라코지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승인된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승계유지권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받았으나 승계유지권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당근대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단건영업 유망지역
 - 태양광 ‘주조’ 영업 유망지역
 - 태양광 개발사업 유망지역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Y,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ZO, ZP, ZQ, ZR, ZS, ZT, ZU, ZV, ZW, ZX, ZY, ZZ

문의처: 010-6834-7400, mcs@dasco.kr, 문의처: ~ 세라코지주

임야

합니다. 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장부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